

구연산, 구제역 방역용 수요 급증

경기도, 유산균 혼합 배양액 농가에 무상공급 ... 1주일 250톤 생산

구연산(Citric Acid)이 구제역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경기도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구연산·유산균 혼합액을 제조해 1월31일부터 도내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1월7일 발표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0년 12월 말부터 구연산에 유산균 등 유용미생물을 혼합한 배양액을 농가에 공급한 결과 구제역 방역에 효과를 본 데 따른 것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도(pH) 5.0 이하 혹은 11.0 이상에서 급격히 사멸하는데 구연산·유산균 혼합제는 산도 4.0 이하의 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혼합제를 사료나 물에 섞어 가축에게 먹이거나 축사 내부에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18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 환경사업소 등의 미생물 배양시설을 총동원해 구연산·유산균 혼합액을 제조하고 있다.

특히, 김문수 지사가 2월4일 민간시설까지 이용토록 지시함에 따라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합동산업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1주일에 250톤의 구연산·유산균 혼합액을 생산해 공급키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07>